

허가 안나는 화물차, 왜 많은가 했더니...



공무원·화물업자·화물운송업체 '검은 거래' 트랙터 11대 증차→공무원에 1900만원 뇌물 청소·살수차 등 486대→화물차로 서류 위조

공무원과 결탁, 신규 허가 제한된 카고 트럭·덤프·트레일러(컨테이너 운송차량) 등 일반 대형 화물 차량을 불법으로 증차한 화물운송업체 대표와 화물협회 관계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가 '화물차량 과다 공급'을 이유로 지난 2004년 5t 이상 영업용 화물차의 신규 등록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 대형 화물 차량의 신규 공급을 금지한 뒤 이런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이같은 불법 증차 화물

광주경찰, 2명 구속·1명 영장·37명 입건

전국에 굴러다니는 불법 화물차 3만6000대

차량이 3만6000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불법 증차 과정에서 광주·전남 일부 자치단체 공무원과 화물차 운송업체간의 뇌물 수수 정황을 파악하고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 파문이 커질 조짐이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

일 전남 H운수 대표 최모(45)씨를 화물운수 사업업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고흥군청 공무원 김모(40·7급)씨를 직무유기 및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경찰은 또 G물류회사 대표 추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감모(50)씨 등 화물운송업체 대표 34

명, 공무원 1명, 화물협회 관계자 2명 등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0년 5월 26일부터 2011년 8월 30일까지 신규 공급이 금지된 트랙터(컨테이너 운송차량) 11대 증차를 도와달라며 김씨에게 1300만원, 김씨의 상관인 신모(58·6급)씨에게 627만원 등 1927만원 상당의 중고차량 구입비를 건넨 혐의다.

김씨 등 공무원들은 화물차 신규 등록을 해준 뒤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는 화물협회에 증차 관련 사실 통

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 등 화물운송업체들은 신규 증차가 가능한 청소차·살수차 등 특수용도 화물차에 대한 허가를 받은 뒤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하는 방법 등으로 증차가 불가능한 일반 화물차 486대로 변경해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화물업체 대표 상당수가 60만원 안팎의 차량 변경 등록 절차를 거쳐 허가가 제한된 신규 일반 대형 화물차 번호판을 획득한 뒤 해당 1000만~4000만원까지 받고 팔아

치운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특수 화물차를 일반 화물차로 불법 변경하는 절차를 대행해주는 전문 브로커 조직까지 개입한 정황을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신용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정부가 대형 화물차량에 대해 기를값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이들 불법 증차된 화물차량에 지원받는 보조금 규모도 수백 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불법 증차 차량에 대한 보조금 환수 의지도 피력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4원침 (8886) 김장두



중국산 미꾸라지 불법양식

서해지방 해양경찰청은 12일 중국산 미꾸라지를 키워 판매하려 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최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7월 초 10cm 이하의 중국산 미꾸라지 4.4t(3500만원 상당)을 이식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사들여 전북 완주군 양어장에서 양식한 혐의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U대회 공식 블로그에 안마방 광고

○하루 방문자가 2000여명 수준인 광주유니버시아드 공식 블로그가 안마방 광고로 채워졌다가 뒤늦게 복구.

○12일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0분께 광주 U대회 공식 블로그 '유니버시아드 소식'란과 트위터 등에 '광주안마* 미인스페셜타임코스도 입'이란 제목의 낱뜨거운 안내 글로 채워졌다는 것.

○조직위는 공식 블로그에 해커가 침입해 '미너 관리자 대기중', '미너관리 서비스' 등 음란물을 30여년간 게재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해 관련 글을 삭제하고 경위를 조사중.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장애인 대상 성범죄 급증

1년새 광주 10건→32건, 전남 15건→37건

광주·전남지역에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유승우 새누리당 의원이 12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지방청별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현황'자료에 따르면 광주 지역에서 지난해 발생한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는 32건으로 전년(10건)에 비해 약 3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지난 2011년 15건이던 전남지역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도 지난해 37건으로 급증했다.

전국적으로도 2009년 293건이던 장애인 성범죄 발생 건수가 2010년 321건, 2011년 494건, 2012년 661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성폭력을 당해도 정확한 일시·장

소 등 구체적 피해 사실을 진술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가해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유 의원은 분석했다. 여기에 성 폭력 범죄를 겪고 있는 장애인들의 상담과 문제 해결을 위한 경찰의 예방 조치도 홍보 미흡 등으로 겹쳐져 있어 예방을 위한 실생활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는 32건으로 전년(10건)에 비해 약 3배 가 나온다.

서부경찰이 온라인 상에서 수화 통역을 통해 성·가정폭력 피해를 겪고 있는 장애인들의 상담과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겠다고 관할 지구대·파출소 등 7곳에 설치한 '화상 수화 통역 시스템'도 장소·시스템 안내와 홍보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장애인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추석 장보기 후원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적십자봉사원들이 12일 오전 광주 양동시장에서 결연세대 주민들과 함께 제수 용품을 구입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각계로부터 받은 후원금을 적십자사가 결연세대 주민들과 함께 다니며 추석 장보기에 쓰는 방식으로 전개됐다.

/최혜나기자 choi@kwangju.co.kr

'조건만남' 혹했다가...

목포男 수십명 사기당해

30명 5800만원 피해

지난 5월 29일 밤 11시30분 목포시 산정동 A모텔 객실. 회사원 김모(31)씨는 친구와 술을 마신 뒤 객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조건 만남'을 시도했다.

잠시 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조건 만남을 하려면 보금금 50만원 송금하라'는 쪽지가 날아왔다. 술에 취한 김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계좌이체 했다.

그러나 여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김씨는 환불을 요구했고, 사기 조직 인출책 이모(25·대구시 동구)씨는 "우리가 하는 일이 불법이고 대표통장을 이용하는데, 돈을 인출하려면 통장에 1000만원이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 말을 믿고 1000만원을 계좌이체 한 뒤 환불금을 기다렸다. 하지만, 이씨의 말과는

달리 돈은 약속시간이 지나도 입금되지 않았다.

김씨는 이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고, 이씨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먼저 환불해줬다. 환불받으려면 1000만원을 다시 입금하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미 1050만원을 계좌이체한 터라 하는 수 없이 돈 1000만원을 다시 입금했다. 김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10시 간 만에 2700만 원을 사기당했다.

결국, 김씨는 같은 달 30일 목포경찰에 이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12일 이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현재까지 목포경찰에 접수된 피해자만 모두 30명. 피해액은 5800만원.

경찰은 범행이 전국적으로 이뤄진 점으로 미뤄 피해자 수가 100명 이상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김윤석 보석 신청

범인, 17일 허가여부 결정

세계 수형선수권대회 유치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윤석 유치위원회 사무총장 등이 보석을 신청했다.

김 사무총장과 광주시 6급 공무원 함모(·44)씨는 12일 광주지법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사무총장

등은 필요한 조사가 상당 부분 이뤄졌고,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 조직위 사무총장을 겸임하고 있는 그의 부재로 인한 업무 공백 등을 들어 석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오는 17일 김 사무총장 등을 심문해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 재판은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이동호 판사가 맡았으며 첫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함평경찰, 발빠른 공조수사... 하룻만에 살인범 검거

지난 10일 함평에서 사귀던 애인을 흥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도주해 공개수배된 용의자 신모(42)씨가 사건 발생 하루 만에 경북 포항에서 붙잡혔다.

사건발생 직후 함평경찰(서장 강철원)이 목격자와 CCTV확보, 빠른 공개수배등을 통해 전국 경찰과 공조수사를 이뤄 신씨를 하루만에 검거했다.

함평경찰과 포항북부경찰은 지난 11일 밤 8시30분께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마산사거리에서 신씨가 타고 있던 차량을 발견, 500여m를 추적한 끝에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20분께 함평군 함평읍 1교 회 앞 도로에서 동거녀인 A(·43)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미리 준비한 흥기로 A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신씨는 도피자금으로 250만원을 인출한 뒤, 추격을 피해 전북 완주와 경북 영덕 등을 거쳐 포항으로 잠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12일 신씨에게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함평=황운화기자 hwang@

CJ 엠로비전 hello

헬로tv 사은대축제

헬로tv에서 마련한 즐거운 이벤트! 모두가 부러워할 다양한 혜택을 만나보세요

1. 결합상품 맞춤제안 국내 최고 디지털 방송, 초고속 인터넷, 인터넷 집전화 서비스를 국내 최저 요금으로!

| | | | | | |
|--|--|--|---------------------------------|--|----------------------------------|
| | 디지털tv 국내 최고 채널을 보유한 No.1 디지털 케이블 방송 | | 인터넷 국내 최고 기가급 스피드 초고속 인터넷 상품 | | 전화 통질은 그대로, 요금은 절반 원하는 집전화 |
| | 월 8,000원 (VAT 포함 8,800원) | | 월 10,500원 (VAT 포함 11,550원) | | 월 2,000원 (VAT 포함 2,200원) |

2. 헬로tv 미니팩 고객님들을 위한 합리적인 선택! 원하는 채널만 선택 골라보세요!

| 상품명 | 상품설명 | 주요채널 | 가격 |
|---------|--------------------------|------------------------------|-------------------------------------|
| 골프/스포츠팩 | 골프중계를 비롯한 골프정보가 가득한 골프팩 | SBS Golf, J Golf | 3,000원 (VAT 포함 3,300원) |
| 다큐팩 |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되는 다큐팩 | NAT GEO ADVENTURE, Discovery | -3,000원 2,000원(회원가) (VAT 포함 2,200원) |
| 오락팩 | 최신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는 오락팩 | SBS, MBC, KBO | -3,000원 2,000원(회원가) (VAT 포함 2,200원) |
| 키즈팩 | 영 유아 어린이 대상의 키즈팩 | KBS Kids, Junior | -3,000원 2,000원(회원가) (VAT 포함 2,200원) |
| 취미팩 | 바둑채널이 포함된 취미팩 | 바둑TV, Arte | -3,000원 2,000원(회원가) (VAT 포함 2,200원) |

가입문의 **1588-3450** www.cjhellotv.com

사|원|모|집

사계절 푸르른 양잔디, 친환경 나비의 고향 캠퍼스다이스너티CC에서 함께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부서**
 - 웨이치레스(신인 및 주임급) 0명
- 자격요건**
 - 고졸이상 학력 취득자
 - 경력자 우대
- 급 여**
 - 연봉제 1,900만원이상(퇴직금 별도)
 - 경력자 면접 후 결정(이력서 우측상단에 희망연봉 기재)
- 복리후생**
 - 4대보험 가입, 숙식제공, 각종 수당 지급, 경조사지원, 우수사원포상, 단체상해보험가입, 교통비 지급 등
-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전형방법**
 - 우편 및 이메일, 방문 접수
 - 접수기간 : 총원사까지(총원사 조기마감)
 - 서류접수 후 면접일자 개별통보
- 접수처**
 - 주 소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신1-6
 - 담 당 : 경영지원팀 오승대 부팀장
 - 전 화 : 061-320-7717
 - 팩 스 : 061-320-7710
 - 이메일 : seungtae01@naver.com

함평다이스너티 컨트리 클럽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당 한의원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코피 해결

비만클리닉

한의학박사 박상준 원장
동신대학교 외과교수 역임

KT ● 중앙초교 ● 금남로 ● 계림동 ● 주안동 ● 대한생명 ● 구.한미쇼핑 ● 동부소방서 ● 북경당 한의원

진료문의 **062)227-7575**
 진료시간: 평 일: 오전9시~오전7시
 토요일: 오전9시~오전4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오전진료

*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080130-광-266호